

## 「2015 원자력 CEO 하계포럼」 개최 원자력산업계 경영 현안 논의, 원자력 재도약 다짐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7월 23~2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조석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회장(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을 비롯하여 원자력산업계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원자력 CEO 하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2015 원자력 CEO 하계포럼은 원자력산업계 경영진 간 현안 사항 논의와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원자력산업의 재도약 방안과 각 기관, 기업 간 향후 협력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금년 처음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주문화 전문가인 양진진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제주 유배길에서 추사 김정희를 만나다'를 주제로 인문학 강연을,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이 '기후 변화 시대 에너지 자원 정책의 방향', 원전 제염 해체 전문가인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해외 원전 해체 현황 분석과 국내 원전 해체 대비 전략'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강연 후에는 원자력정책 전문가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원자력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 세션이 이어졌다. 토론 세션에서는 후쿠시마 사고와 국내 원전 비리 사건 등으로 어려워진 원자력산업계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 수용성 증진을 주제로 각 기관의 활동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하계포럼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타 산업계와는 달리 그동안 긴밀한 상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원자력산업계 경영진들은 이번 하계포럼을 통해 경영 현안 사항과 안정적인 원전 운영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포럼 후 올레길 트레킹을 통해 향후 협력 방향과 원자력산업 재도약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단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